

싱가포르 2024: 4세대 총리 취임과 싱가포르식 능력주의 엘리트 체제의 미래*

김지훈**

국문초록

2024년 싱가포르는 새로운 총리의 취임과 함께,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싱가포르의 미래' 구상을 발표한 해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로렌스 윈 총리가 싱가포르 젊은 세대의 필요, 욕구 그리고 열망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싱가포르 교육 제도의 근간 중 하나인 초등학교 졸업시험(PSLE) 제도를 개정하여, 초등학교 초반부터 입시 준비를 요구하는 중학교 입시 제도를 변경하였다. 한편, 싱가포르의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율과 결혼율 감소 등 이른바 '3포 세대' (혹은 'n포 세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윈 총리는 취임식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주요 정책 변화의 영역으로 '경제', '가족', '주택' 그리고 '교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그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싱가포르식 엘리트 능력주의 정치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분석한다.

주제어: 싱가포르, 로렌스 윈, 총리, 능력주의, 엘리트 정치체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1S1A5A2A01071067)이며, 인하대학교의 지원을 받았다.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jhkim@inha.ac.kr, <https://orcid.org/0000-0001-7985-5519>

I. 들어가는 말: 4세대 총리 취임과 능력주의 엘리트 체제의 미래

2024년 싱가포르의 새로운 총리인 로렌스 윈의 취임과 함께,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 구성을 목표로 한 ‘싱가포르의 미래’ 구상안을 발표한 해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윈 총리는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 출생한 첫 번째 총리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 싱가포르 국가리뷰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며, 2024년 발표된 핵심 정책 중 교육제도 개혁과 인구학적 세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로렌스 윈 총리(겸 재무부 장관)는 4세대 지도자로 정식 취임하면서, 싱가포르 젊은 세대의 필요, 욕구 그리고 열망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변화로, 싱가포르 교육제도의 핵심 중 하나인 초등학교 졸업시험(PSLE) 제도를 개정하여 초등학교 초반부터 입시 준비를 요구하는 중학교 입시 제도를 변경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율과 결혼율 감소 등 ‘3포 세대’(혹은 ‘n포 세대’) 현상의 글로벌 흐름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치체제는 엘리트주의적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세대 싱가포르인들에게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에 윈 총리는 대중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경제’, ‘가족’, ‘주택’, 그리고 ‘교육’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의 혁신과 개혁을 발표하였다(Wong 2024a).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치 및 사회 섹션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2024년 싱가포르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의 예상 GDP 성장률(2.6%)을 상회하는

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 주요 국가 및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Chin 2024). 또한, 외교적으로는 왕 총리가 말레이시아 총리 및 한국 정상과 회담을 진행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 총리와 그의 정부는 ‘4세대 지도자(4th Generation Leader)’ 혹은 ‘스마트 정부 2.0’이라는 표현과 구호를 사용한다(Wong 2024b, 2024c). 이는 왕 총리가 1965년 이전에 태어난 기존 지도자들과 달리, 독립 이후 출생한 첫 총리(1972년생)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구호라고 생각된다. 세계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 세대를 구분하거나, 한국이 한국전쟁 전후 세대를 구분하는 것처럼, 싱가포르 역시 1965년 완전한 독립을 기점으로 세대 구분이 가능하다는 상징성이 있다.

특히, 왕 총리는 국정연설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교육’, ‘돌봄과 복지’, ‘가족’ 정책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이는 싱가포르 엘리트층이 기존의 능력주의 체제에서 수정된 능력주의 체제로의 변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치 및 사회 영역에서 인구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정치: 로렌스 왕 총리 취임과 싱가포르식 정치체제의 미래?

로렌스 왕 총리의 취임은 복잡한 정치적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8월 21일, 리셴룽(Lee Hsien Loon) 총리는 연설을 통해 싱가포르 정치의 중요한 미래를 언급하며, 4세대 리더(4G, 4th Generation) 중에서 총리직을 승계할 인물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김종호·김지훈 2023: 71). 이 예고는 2024년에 실제로 실현되었으며, 40~50대 초반의 4세대 관료 중 로렌스 왕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총리직에 올랐다. 그러나, 4세대 정치 지도자 승계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도를 통해 성사된 것이었다.

리셴룽 총리는 2017년에 본인이 2020년에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 헝스위킷(Heng Swee Keat) 재무장관을 포함한 세 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다(강윤희·최인아 2018: 91). 이후 2018년 11월 23일, 인민행동당 중앙집행위원회(Central Executive Committee)에서 헝스위킷이 리셴룽 총리에 이은 사무총장보(Assistant Secretaries-General)에 선임되면서 4세대 총리로 유력해졌으나(최인아 2019: 119), 결국 2024년 로렌스 왕이 최종적으로 총리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총리직 승계 과정은 1대 총리 리관유, 2대 총리 고촉통(Goh Chok Tong), 3대 총리 리셴룽에 이어 4대 총리 로렌스 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리셴룽 총리 취임 당시에는 리관유 전 총리를 멘토 장관(Minister Mentor)으로, 고촉통 전 총리를 선임 장관(Senior Minister)으로 지명하여, 전임 총리들이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옥상옥’ 구조를 도입한 바 있다(아래 <표 1> 참고).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총리를 구분하면, 로렌스 왕은 싱가포르 완전 독립 이후 출생한 첫 번째 ‘독립 후 세대’ 총리이다. 그렇다면, 독립 후 출생한 1970년대생 총리가 싱가포르 정치와 사회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독일 사회학자 칼 만하임(Karl Mannheim)이 처음 제안한 개념인 ‘세대’(generation or cohort)는 특정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학 및 사회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진다(Mannheim, K. 1972[1928]: 105; 기든스 외, 2018: 375 재인용). 아울러, 일반적으로 30년을 한 세대로 간주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세대(generation)를 적용하

고, 윈 총리는 독립 이후로서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세대(generation)를 대입하자면, 윈 총리는 독립 후 2.5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1990년대 후반까지 소수의 명문 학교만이 존재했고, 초등학교 입학생 중 약 5%만이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교육 시스템이 유지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윈 총리는 기존 세대와는 다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한 첫 번째 세대이자, 교육제도 개혁의 수혜를 직접 경험한 지도자로 볼 수 있다(김지훈·김성희 2014; 황인원 외 2012). 이는 기존 엘리트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윈 총리의 리더십이 싱가포르의 미래 정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싱가포르의 역대 총리

	이름	취임	이임	재임 기간	총리 후 직책
1	리완유 (1923-2015)	1959년 6월5일	1990년 11월28일	31년 176일	선임장관(1990-2004) 멘토장관*(2004-2011)
2	고축통 (1941-)	1990년 11월28일	2004년 8월12일	13년 258일	선임장관(2004-2011)
3	리셴룽 (1952-)	2004년 8월12일	2024년 5월15일	19년 277일	선임장관(2014-현재)
4	로렌스-윙 (1972-)	2024년 5월15일	현재		

* 멘토 장관(Minister Mentor) 직책은 2004년 8월 12일, 리셴룽 총리가 고축통 총리에 이어 제3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신설된 직위이다. 이 직책은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소속으로, 총리가 직접 지명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리완유 전 총리가 유일한 멘토 장관이었다. 한편, 선임 장관(Senior Minister) 역시 총리가 전직 총리 혹은 부총리 중에서 지명할 수 있는 직책이다. 초대 선임 장관은 싱가포르 초대 외교장관이었던 S. 라자라트남(S. Rajaratnam)으로, 1985년부터 1988년 은퇴할 때까지 해당 직위를 역임하였다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n.d.).

리완유를 비롯한 전직 총리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싱가포르 최고의 명문학교인 래플스(Raffles Institution),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 출신으로, ‘금수저’ 배경

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로렌스 왕 신임 총리는 본인이 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흙수저’ 혹은 ‘동수저’ 출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싱가포르식 능력우선주의(Meritocracy)를 통해 고등교육을 받고 관료 및 정치인으로 성장한 ‘능력주의적 엘리트’로 자리 잡았다. 이는 과거 리완유 가문의 총리 세습과 그 친인척들이 정·재계 주요 직책을 독점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한 세대를 건너뛴 ‘리완유 가문의 3대 총리 세습’ 가능성을 차단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점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로렌스 왕은 1972년생으로, 2024년 말 기준 만 52세이다. 그는 싱가포르식 능력주의 엘리트 육성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에서 교육을 받고, 관료로 근무한 후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거쳐 총리에 오른 정치인이다. 그의 학력과 경력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엘리트 인재 풀(pool)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왕 총리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도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싱가포르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싱가포르의 평범한 로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인 빅토리아 주니어 칼리지(Victoria Junior College)로 진학했다. 이후, 최상위 성적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정부 장학생(Government Scholar)로 선발되었다. 싱가포르 정부 장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 중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대학 학부과정의 전액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장학생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싱가포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관료나 교수 등 엘리트 경로의 커리어도 보장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로렌스 왕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서 학부과정을 마친 후, 미시간대학교 앤아버(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싱가포르 관료로 근무하던 그는, 많은 싱가포르 정부 장학생들이 그렇듯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추가로 취득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와 같은 학력과 경력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 장학생 출신 엘리트들이 거치는 전형적인 학위 취득 및 관료 근무 경력을 갖춘 것이다.

그는 1997년부터 관료 생활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부서를 거친 후 2008년 리셴룽 총리 취임 이전 약 3년간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였던 리셴룽의 보좌관을 지냈다(김종호·김지훈 2023: 4). 정치에 입문한 것은 2011년의 총선부터였다. 이후 그는 싱가포르 주요 정치인들이 거치는 핵심 부처 장관직을 역임했으며, 교육·국방·문화·행정 분야를 거쳐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COVID-19) 대응 시기에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으로 활동했다.

2022년 4월,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후, 그는 6월 13일 부총리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4대 총리 승계 방식과 일정에 관련해서는, 2022년 11월 6일, 2년 만에 치러진 인민행동당(PAP) 전당대회에서 리셴룽 총리와 로렌스 왕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2025년 이내에 총선거와 함께 총리직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Harry 2022; 김종호·김지훈 2023: 4).

Ⅲ. 경제: 기대를 넘은 4% GDP 성장

싱가포르의 2024년 GDP 성장률은 4%를 기록하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시장이 예상했던 2.6%를 크게 상회했다(Chin 2024).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을 제외하면 한

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의 주요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다(IMF 2025; World Bank 2025).

<표 2> 싱가포르와 주요 국가의 GDP 성장률(%), 2020-2024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싱가포르	-3.9	9.7	3.8	1.1	4.0 (2.6*)
한국	-0.7	4.3	2.6	1.4	2.5*
대만**	3.4	6.6	2.6	1.3	3.7*
일본	-4.1	2.6	2.0	1.9	0.3*
미국	-2.2	5.8	1.9	2.5	2.8*
전세계	-2.9	6.3	3.1	2.7	3.2*

자료: World Bank Database Archive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di-database-archives#>)와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에 기반하여 저자가 구성 (자료 접근: 2025년 1월 1일).

* 2024년 자료는 IMF의 2024년 10월 기준 예측치(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에 기반하며, 싱가포르의 2024년 자료는 왕 수상의 발표에 기반함 (Chin 2024).

** 대만 자료는 IMF 자료에 근거함.

2024년 싱가포르의 경제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표 3>에 나타난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 19 경제 침체로 인한 기저효과로 높았던 2021년보다는 낮지만, 2022년과 2023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실업률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 부문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금융, 정보통신, 교통 등 선진국형 전문 서비스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표 4> 참고).

<표 3> 2021-2024 싱가포르 주요 경제지표

연도	2021	2022	2023	2024		
	전체	전체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명목 GDP (\$)	5,334억	6,435억	6,733억	1,721억	1,804억	1,828억
실질 GDP 성장률(%)	7.6	3.6	1.1	2.7	2.9	5.4
상품 수출 (백만\$)	614,081	709,967	638,403	165,941	164,726	169,579
상품 수입 (백만\$)	545,882	655,436	567,319	146,033	154,857	152,361
고용 (천명)	3,643.0	3,897	4,000			
실업률(%)	2.6	2.1	1.9	2.1	2.0	1.8
물가 (%)	2.3	6.1	4.8	3.0	2.8	2.2

출처: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4a.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3*; MTI. 2024b.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First Quarter 2024 (5월 23일)*; MTI. 2024b.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Second Quarter 2024 (8월 13일)*; MTI. 2024c.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Third Quarter 2024 (11월 22일)*; MTI. 2023.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2*; MTI. 2022.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1*. (검색일: 2025/01/13.)

<표 4> 2021-2024 싱가포르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전체	전체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금융/보험	14.6	13.5	13.8	6.5	6.7	5.4
제조업	22.3	21.6	18.6	-1.8	-1.0	11.0
정보 통신	5.6	5.4	5.7	6.3	6.4	4.7
기업 및 전문직 서비스	5.8	5.4	5.7	2.5	2.7	1.8
행정지원 서비스업	3.6	3.0	2.8	0.2	0.2	0.3
기타 서비스	10.5	9.3	9.6	3.7	2.5	2.4
건설	2.9	2.7	3.5	4.1	3.8	3.7
소매	1.4	1.3	1.3	2.7	-2.1	-0.7
교통 & 저장	6.1	10.4	6.8	6.8	5.4	7.5
숙박업	0.5	0.7	0.8	14.4	4.3	3.7
요식업	0.9	0.9	0.9	1.1	-2.3	-0.7
부동산	2.9	5.4	3.1	0.6	-1.3	-0.2

출처: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4a.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3*; MTI. 2024b.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First Quarter 2024 (5월 23일)*; MTI. 2024b.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Second Quarter 2024 (8월 13일)*; MTI. 2024c.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Third Quarter 2024 (11월 22일)*; MTI. 2023.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2*; MTI. 2022.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1*. (검색일: 2025/01/13.)

로렌스 왕 총리는 취임식에서 “스마트 국가 2.0의 출범”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Wong 2024b, 2024c), 독립기념일 국정연설에서도 경제를 4대 핵심 정책 영역 중 하나로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캘리포니아에서 개발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시대”라고 언급하며, “메이드 인 중국 2025(Made in China 2025)”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경제 운영 전략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Wong 2024a). 이어,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과 생산성의 침단에 서기 위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하며”, “연구와 개발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 및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Wong 2024a).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시진핑 주석의 중국 간 정치·경제적 긴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특정 국가의 편에 서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전략적 언급으로 평가된다.

경제정책 및 지원책에 있어서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째, 왕 총리는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싱가포르산(産) 창의적 테크 기업으로 SEA, 그랩(Grab), 그리고 레이저(Razer)와 함께, 다른 영역의 기업들도 열거하면서,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Wong 2024a),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관료화된 기술 분야 행정 절차를 줄일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행 1,000개의 드론으로 드론쇼를 하기 위해 개별 드론의 등록과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단일 신청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1,000개의 드론이 사용되는 드론쇼를 위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련 비용 역시 25,000 싱가포르달러(SGD)에서 500 SGD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Wong 2024a).

둘째, 싱가포르인들의 기술 수준을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 직

업훈련과 교육정책을 강화할 것을 발표했다. “SkillsFuture Level-Up” 프로그램을 통해 40세 이상의 싱가포르인들은 4,000 SGD의 학습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훈련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만약 전일제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 최대 월 3,000 SGD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Wong 2024a). 40세 이상인 싱가포르인들이 이 제도를 2년간 활용하면 1인당 최대 72,000 SGD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Wong 2024a). 이러한 정책은 2022년 발표된 저출산·고령화 대응 대책과 연결된다. 당시 정책이 장년·노년층을 중심으로 했다면(김종호·김지훈 2023: 5장), 이번 대책은 중년층까지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복지 국가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노동에 기반한 복지를 제공하는 워크페어(Workfare) 방식을 대안으로 운영해왔다. 영 총리는 싱가포르 노동조합(NTUC)과 협의해 “SkillsFuture Jobseeker Support Scheme”을 발표했으며, 이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Wong 2024a). 해당 제도는 실직 시 최대 6개월간 최고 6,000 SGD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직업훈련 강화 및 40세 이상 인구 대상 정책은 2022년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것에 이어, 직업 훈련 지원제도를 구축한 이후(김종호·김지훈 2023: 5장),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IV. 대외관계와 한국과의 관계

새로운 총리의 대외 관계와 상호 방문 일정은 싱가포르가 중시하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볼 때, 2024년은 싱가포르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를 다시금 최우선 과제로 확인한 한 해였다.

로렌스 윈 총리는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2024년 6월 12일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가졌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윈 총리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경제와 재생 에너지 같은 신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Wong 2024c). 특히, 조호르-싱가포르 특별 경제구역과 조호르바루-싱가포르 철도 연결 사업을 주요 협력 프로젝트로 언급했다.

이 가운데 조호르-싱가포르 특별 경제구역은 1980년대부터 부침을 겪으면서도 지속되어 온 협력 모델이다. 조호르바루-싱가포르 철도 연결 사업의 경우, 1991년 최초 제안된 후 2010년 다시 논의되었으나, 말레이시아 정권 교체로 인해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11월 29일 기준, 93%의 공정률에 도달하며 35년 만에 완공이 임박했다(Kok 2024). 저자가 2025년 2월 싱가포르와 조호르바루(Johor Bahru)를 방문해 말레이시아 내 철도 건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으며, 조호르바루 지역의 출입국 사무소 건물 바로 옆에 철도 역사가 건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자가 20여 년 만에 육로로 싱가포르 국경을 넘어 조호르바루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현재 양국 간 이민 검색대 통과에 총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직접 체감했다. 최초 합의 후 정치경제적 이유에서 10년 이상 지체된 이 철도 및 지하철 연결 사업이 완성되면, 마치 홍콩과 선전을 연결하는 철도처럼 싱가포르와 조호르바루를 오가는 여행객과 통근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두 국가 간의 연결이 보다 간편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 1> 참고).

<사진 1> 싱가포르-조호르바루 간 신규 철도의 조호르바루 출입국 역사



주: 사진 중앙 오른쪽 편에 보이는 건물이 출입국 심사 시설 바로 옆에 건설 중인 역사임. 역사와 연결된 고가도로와 사진 중앙 중간과 좌편에는 열차 회차를 위한 철도시설이 위치함.

싱가포르는 2024년 유엔(United Nations, 이하 UN)과 한국과의 외교에서도 주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2024년 9월 2일 왕 총리는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와 공식 오찬을 가지며, UN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를 위한 정상회담(the Summit of the Future)’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Wong 2024d). 또한, 2024년 10월 8일에는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는 싱가포르와 한국 간의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하며, 상호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Wong 2024e). 아울러 2025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Wong 2024e).

V. 사회 문화: 인구구조와 교육제도를 통해 살펴보는 싱가포르 식 정치제도와 선진 민주주의의 가능성

이 장에서는 싱가포르 사회의 주요 현안 두 가지를 다룬다. 첫 번째로, 2024년 8월 18일 독립기념일 행사(National Day Rally)에서 로렌스 윈 총리가 한 연설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사회의 현안을 살펴본다(Wong 2024a). 두 번째로, 2024년에 시작된 교육제도 개혁이 싱가포르식 엘리트 능력주의 정치체제에 영향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구성을 통해 분석한다.

먼저, 윈 총리의 연설 “우리의 꿈을 우리가 실현시키는 싱가포르” A Singapore Where We Realise Our Dreams”(Wong 2024a)를 살펴보자. “전진하는 싱가포르(Forward Singapore, 이하: 포워드 싱가포르)”라는 슬로건은 윈 총리가 취임 이후 본인의 임기 동안 중점을 둘 정책들을 요약한 것이다. 연설에서 그는 가까운 미래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영역으로 ‘경제’, ‘가족’, ‘주택’ 그리고 ‘교육’을 꼽았다(Wong 2024a).

첫째, ‘가족’ 영역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Wong 2024a). 윈 총리는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자녀를 갖고 싶어 하지만, 본인들의 목표와 커리어를 추구하는 것과 개인적 흥미를 추구하려는 인생 목표가 상충함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preschool)의 수를 늘리고, 학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전일제 아동 돌봄(childcare)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과 맞벌이 가족 기준 정부학교의 종일반 비용수준인 300 SGD를 보조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을 통해 동일한 전일제 비용을 최하 3 SGD만 내면 되도록 낮출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윈 총리는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확대도 강조했다. 여성에게 본인들의 커리어를 추구할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아버지들의 역할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0년 전 도입된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서 약 25%의 아버지가 이를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약 절반으로 증가했고, 2024년 초부터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였다(Wong 2024a). 새로운 제도에서는 10주간의 공유 육아휴직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며, 새로운 제도를 기존 제도와 결합하면 총 30주의 육아휴가가 주어진다. 추가 육아휴직 기간으로 10주를 더 부여하는 것은 파격적이다. 새로운 제도는 2025년 4월 1일부터 6주, 2026년부터는 10주로 점진적으로 늘어난다(Wong 2024a). 새롭게 추가된 10주간의 휴직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아버지는 4주, 어머니는 16주의 육아휴가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10주간의 육아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셋째 자녀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곧이어 발표할 예정이다(Wong 2024a).

둘째, 결혼한 젊은 층에게 중요한 이슈인 주택(Housing) 정책에 대해서도 다뤘다. 윈 총리는 코로나19로 지연된 HDB 아파트의 조속한 완공을 약속했다(Wong 2024a). 국가발전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10만 채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그중 2024년 말까지 8만 채의 아파트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층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House Price-to-Income ratio)은 주택을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서울의 경우 2018년도 9.6년, 2022년 15.2년, 2023년 13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진중언 2024). 싱가포르의 경우 이 비율이

2014년에 4.8년으로 약 5년치 소득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4년 이하로 떨어졌지만, 코로나19 이후 다시 4.8년으로 상승했다(Wong 2024a). 이 수치는 여전히 런던, 시드니, 홍콩 등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편이다. 윈 총리는 앞으로 이를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추진함으로써 싱가포르인이 주택 구입에 있어서 여유가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HDB 아파트를 HDB ‘스탠다드 (Standard)’, ‘플러스(Plus)’, 그리고 ‘프라임(Prime)’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주택 선호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탠다드 형의 경우 싱가포르 전지역에 지어지며 HDB의 다수를 차지하게 하여 구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프라임의 경우 싱가포르 내 주택 선호 지역에 지어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스탠다드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정부 보조금 역시 주어지며, 다른 보조적인 금융 정책도 고안할 것을 약속했다. 대신 ‘플러스’형과 ‘프라임’형의 경우, 지원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것을 통해 형평성을 유지할 예정이다(Wong 2024a).

청년층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위한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 지역공동체 돌봄 아파트(Community Care Apartments)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부킷 바톡의 하모니 빌리지(Harmony Village @ Bukit Batok)를 통해 공급하며 고령층에 대한 추가적인 주택 공급 역시 약속했다.

셋째,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학부모가 불안하고, 압력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나, “경쟁적이지만, 우수한 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Wong 2024a). 윈 총리는 앞으로 개개인의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초점을 변경할 것이라는 정책을 약속했다. 싱가포르는 OECD가 6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15세 학생의 ‘창조적 사고’(Creative Thinking)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언급하였다(Wong 2024a). 매년 PISA에서 전세계 학생을 평가할 때, 한국은 대부분의 해에 상

위 5개국 안에 들지만, 사실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해에 한국보다 더 우위에 위치한다.

2024년에 도입된 초등학교 졸업시험(PSLE) 성적 평가 시스템의 변경은 21세기 들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교육제도 변화로 평가될 수 있다. 싱가포르 독립 이후 첫 번째 도입된 교육 개혁은 1979년에 이루어진 PSLE의 도입과 스트리밍(streaming) 제도의 시행이었다(Kwak et al. 2023: 5-6). 다시 말해, 1979년의 제1차 교육 개혁을 전면 변경하는 것이 2024년의 교육 개혁 조치이다). 스트리밍 제도의 폐지를 통해 중등학교를 3개의 스트림(Express, Normal [Academic], Normal[Technical])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 두 가지는 싱가포르 역사상 오랜 기간 유지된 교육 체제 전반을 개혁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김지훈·김성희 2014).

초등학교 졸업 단계에 이루어지는 국가 수준의 평가 이후 생애 단계의 교육과 직업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완화하려는 조치는 제2차 교육 개혁인 1997년의 “능력 기반, 열망 중심(ability-based, aspiration-riven)” 교육제도(Kwak et al. 2023: 5)를 2011년까지 운영한 것과 제3차 교육 개혁인 “학생-중심, 가치 중심(student-centric, values-riven)” 교육제도(Kwak et al 2023: 6)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한 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차와 3차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1979년에 도입된 획일화된 교육제도에서 좀 더 다양한 교육 경로(educational pathways)를 통한 진학과 전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학생 선발 방식 역시 다양화되었다.

1) 2024년에 자녀가 PSLE를 치른 싱가포르인 전문직 종사자에 따르면, 명문학교가 그 대로 유지가 되고, PSLE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PSLE 개혁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다(인터뷰, 2025년 2월 20일).

<표 5> 싱가포르 인구 주요 지표, 1980-2024 (단위: 천 명)

연도	1980	1990	2000	2010	2020	2024
총 인구	2,413.9	3,047.1	4,027.9	5,076.7	5,685.8	5,685.8
거주 인구	2,282.1	2,735.9	3,273.4	3,771.7	4,044.2	4,180.9
시민권자	2,194.3	2,623.7	2,985.9	3,230.7	3,523.2	3,635.9
영주권자	87.8	112.1	287.5	541.0	521.0	544.9

출처: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4: vii)

참고: 싱가포르 거주인구(Singapore Residents)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외국 시민권과 싱가포르 영주권을 함께 보유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인구를 말하며, 노동, 고용, 학생 비자 등 각종 비자를 받아서 거주하는 외국인인 제외한다.

<표 6> 연도별 25세 이상 거주자의 최고 학력 (단위: %)

연도	1980	1990	2000	2010	2020	2023
초등 이하	83.1	63.3	45.3	34.5	25.5	21.4
중등	9.5	23.6	24.0	19.0	16.3	15.5
고등학교	4.7*	4.7	8.9	9.5	10.0	10.0
전문대		3.6	9.8	13.3	15.3	16.6
대학	2.7	4.7	12.1	23.7	33.0	36.6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4: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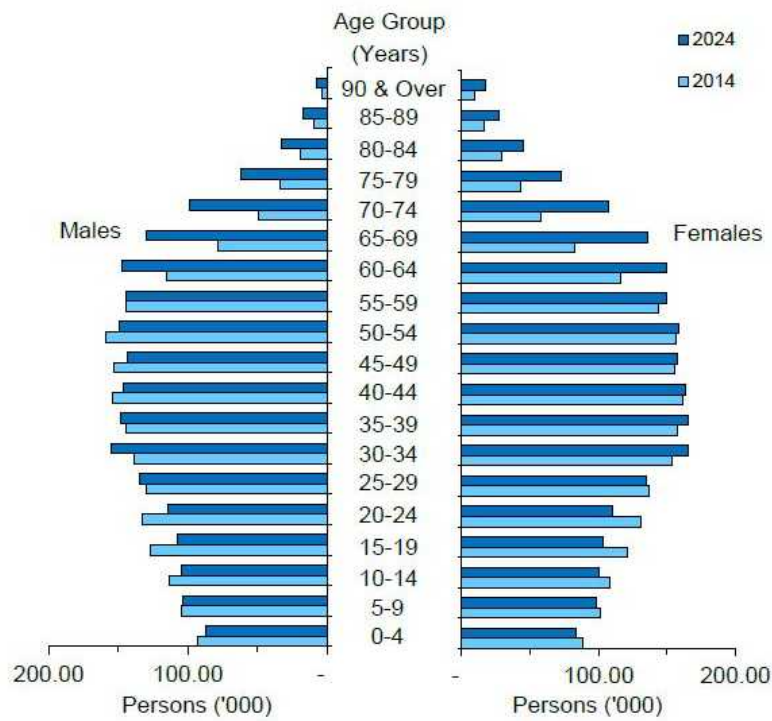
* 1980년 자료는 고등학교와 전문대를 둘 다 포함한 수치임.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1997년과 2011년의 교육 개혁을 통해 전문대와 종합대학으로의 진학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수의 엘리트 양성을 위한 중등 및 고등 교육 제도를 근간으로 싱가포르의 인구가 구성되었으나 21세기에 들어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수가 급증한 결과이다.

2024년 독립기념일 연설에 따르면, 엘리트주의적 능력주의 교육 제도의 근간을 고치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이를 사회인구적 구조에서 비교해보면, 젊은 층의 경우 소수의 엘리트 양성적 교육제도의 수혜자 혹은 비수혜자 구조에서 완화되었으며, 대다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 내외의 싱가포르 거주민이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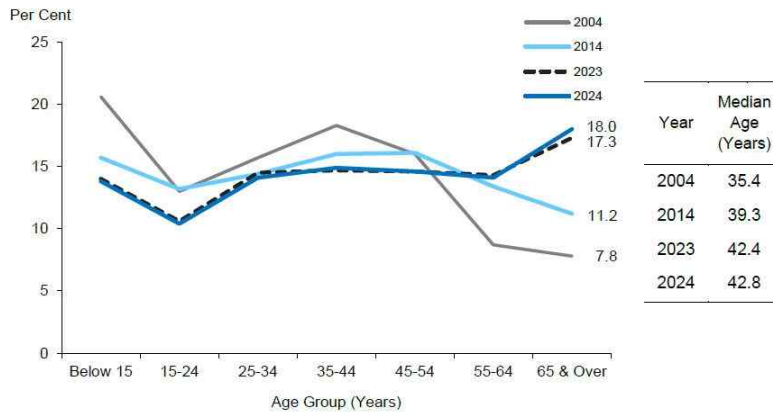
을 졸업하는 새로운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싱가포르 거주민(resident) 인구 피라미드: 2014년과 2024년



출처: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2024: 3)

<그림 2> 싱가포르 거주민의 연령대별 분포: 2004-2024



출처: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4: 3)

2024년의 새 총리의 구상과 싱가포르 교육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싱가포르 독립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온 싱가포르식 엘리트 능력주의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있을까? 저자는 지난 60년 동안 정치체제로서 유지되어 온 싱가포르식 엘리트 능력주의의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현재와 미래의 유권자층을 형성할 인구구조. 둘째, 능력주의 기반 교육제도를 통한 엘리트 선발과 관련한 교육제도에 대한 분석. 셋째, 기존 다수당과 이 당에 의해 선발된 엘리트에게 과도한 이점을 부여하는 선거 제도의 특성. 넷째, 엘리트주의적 교육제도와 현행 선거 제도에 대한 싱가포르 시민들의 지지 여부. 이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국가리뷰의 성격상 다른 연구자들의 과제로 남겨두고,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선거 제도에 대해서만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현행 정치체제와 인민행동당 집권의 변경 가능성을 극도로 낮추는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고위직 임명 및 예산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대통령과 의회 모두에서 인민행동당이 아닌 단합된 여러 야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해야 한다.

과반 의석의 확보는 단순히 유권자 전체의 득표율 과반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국민의 득표에서 과반을 얻었으나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서 승패가 결정된 사례와 유사한 ‘싱가포르식’ 선거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다²⁾. 특히, 1970-2000년대 사이의 총선과 대선에서는 다수의 의원과 대통령이 무투표로 선출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³⁾.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17년 할리마 야콥 대통령이 개정된 헌법에 따른 자격 요건 덕분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 신청자 5명 중 유일하게 후보 적합 판정을 받고 무투표로 대통령에 선출된 사례가 있다(강윤희·최인아 2018: 87-8). 그 이전의 2011년 대선에서는 여당 대표인 토니 탄 전 대통령(35.2%)과 탄칭복 후보(34.85%) 간의 0.35%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으며, 이는 여당의 헌법 개정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강윤희·최인아 2018: 87).

2025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선거는 엘리트주의적 능력주의 정치체제가 그간의 사회인구학적 변화, 교육제도의 발전, 그리고 정당정치적 변화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 정치체제의 미래와 변화

2) 싱가포르 선거구는 1인 선거구와 3인에서 6인을 동시에 선출하는 집단대표선거구(GRC, 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로 구분된다(강윤희, 최인아 2018: 각주3). GRC는 민족 구성 등에서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선 이전에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총선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총리와 여당인 인민행동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 여당이 게리멘더링을 할 수 있는 이점도 현행 여당의 유리한 점을 더한다.

3)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91년 이후, 1999년과 2005년 대선에서 인도계인 나단(S. R. Nathan)은 단독 후보로 무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몇 년간의 정치적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VI. 맺는 말

2024년의 싱가포르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4세대 지도자인 로렌스 왕 부총리가 총리로 취임한 것이 그 예이다. 경제적으로도 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더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의 싱가포르는 두 가지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첫째, 2025년 중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총선)이다. 저자는 2025년의 총선이 20세기의 총선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21세기적 총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싱가포르가 독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치적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총선은 60년 환갑을 맞이하는 국가로서 엘리트주의적 능력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가 ‘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총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민주적 정권 이양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1965년 리완유와 인민행동당의 집권 이후 단일 정당에 의한 국가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경제 영역에서의 높은 성과를 사회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아왔으며, 엘리트주의적 능력주의 사회를 지속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외에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잠시 민주당에 정권을 넘긴 후 다시 자민당 주도의 55년 체제를

유지해온 일본(1.5당 체제; 준노스케 1964)이다.

싱가포르의 정치체제 변동을 선거 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민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1.5당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00년대와 2010년대 총선에서 야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차지하는 등, 20세기 싱가포르 정치 상황에서 ‘1.1당’ 체제로 평가되던 시점에 비해 ‘1.5당’ 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

2025년의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야당 당선과 국회의원 과반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선진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저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그리고 2006~2007년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2010년대 이후 매년 1~2차례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세기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엘리트주의적 능력주의 교육제도와 사회정치문화에서 때로는 미세한, 때로는 희망을 안겨주는 변화를 관찰하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5% 미만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20%~25%의 싱가포르 시민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있다.

20세기 동안 1, 2, 3세대 정치 지도자들은 명문 고등학교와 해외 최고 수준의 명문 대학에서 학부 유학을 하고, 관료로 진출하며,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대다수 싱가포르 시민들과 압도적인 격차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능력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엘리트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수 있었던 20세기와 비교하면, 현재 싱가포르는 인구사회적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제도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싱가포르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유도할 기반이자, 언젠가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리라고 예측해 본다.

참고문헌

- 강윤희 · 최인아. 2018. “싱가포르 2017: 포스트-리완유 시대의 도전과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28(1): 83-120.
- 김종호. 2022. “싱가포르 2021: 코로나 전환기 ‘뉴노멀’을 모색하는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 32(1): 77-124.
- 김종호 · 김지훈. 2023. “싱가포르 2022: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고령 사회의 제도적 조치를 선도한 국가.” 『동남아시아연구』 33(1): 65-128.
- 김지훈 · 김성희. 2014. “싱가포르 이중언어현실과 교육정책.” 『새국어생활』 24(1): 152-180.
- 기든스, 앤서니(Anthony Giddens), 필립 서튼(Philip Sutton). 김미숙 외 역. 2018. 『현대사회학(Sociology)』. 서울: 을유문화사.
- 준노스키, 마쓰미. 1964. “1955년의 정치체제.” 『사상(思想)』 4월호.
- 진중언. 2024. “서울 집 장만, 월급 13년 꼬박 모아야...2023 주거실태조사.”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12/27/BZ5DVV6OPBCNNMTDORALUFWPB4/ (검색일: 2025/01/18)
- 최인아. 2019. “싱가포르 2018: 4세대 리더십 전환 예고와 집권당의 도전과제.” 『동남아시아연구』 29(1): 115-174.
- 황인원 · 김형중 · 김지훈. 2012.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고등교육 정책 변화의 정치경제.” 『동남아시아연구』 22(3): 195-239.
- Chin, Soo Fang. 2024. “Singapore’s economy exceeded expectations, grew 4% in 2024: PM Wong.” *The Straits Times*. 31 December.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spores-economy-exceeded-expectations-grew-4-in-2024-pm-wong> (검

색일: 2025/01/01)

- Kok, Yufeng. 2024. “JB-Singapore RTS Link: Installation of rail systems on track to start from end-2024.” *The Straits Times*. 29 November.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transport/jb-singapore-rts-link-installation-of-rail-systems-on-track-to-start-from-end-2024> (검색일: 2025/01/13)
- Kwek, Denis, Jeanne Ho, Hwei Wong and Ming. 2023. “Singapore’s educational reforms toward holistic outcomes: (Un)intended consequences of policy layering.”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articles/singapores-educational-reforms-toward-holistic-outcomes/> (검색일: 2025/02/13)
- Lee Hsien Loong. 2022. “National Day Rally 2022 Speech.” Prime Minister’s Office. 21 August (검색일: 2022/12/02)
- Mannheim, K. 1972[1928]. “The Problem of Generations.” P. Kecskemen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2.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1*. Singapore: MTI. (검색일: 2025/01/13)
- _____. 2023.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2*. Singapore: MTI. (검색일: 2025/01/13)
- _____. 2024a.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3*. Singapore: MTI. (검색일: 2025/01/13)
- _____. 2024b.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First Quarter 2024*. Singapore: MTI. (검색일: 2025/01/13)
- _____. 2023c.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Second Quarter 2024*. Singapore: MTI. (검색일: 2025/01/13)
- _____. 2024d.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Third Quarter 2024*.

Singapore: MTI. (검색일: 2025/01/13)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4. "Population Trends 2024."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Ministry of Trade & Industry.

Wong, Laurence. 2024a. "National Day Rally 2024 Speech." Prime Minister's Office. <https://www.pmo.gov.sg/Newsroom/National-Day-Rally-2024> (검색일: 2024/12/22)

_____. 2024b. "PM Lawrence Wong at the Swearing-In Ceremony" 5월 15일. Prime Minister's Office. <https://www.pmo.gov.sg/Newsroom/PM-Lawrence-Wong-at-the-Swearing-In-Ceremony-May-2024> (검색일: 2024/12/22)

_____. 2024c. "Speech b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Finance Lawrence Wong at the launch of Smart Nation 2.0 on 1 October 2024." Prime Minister's Office. <https://www.pmo.gov.sg/Newsroom?page=2&keywords=&from=PM%20Lawrence%20Wong&topic=&year=&type=> (검색일: 2024/12/22)

_____. 2024d. "PM Lawrence Wong at the Joint Press Conference with Malaysian PM Dato' Seri Anwar Ibrahim" 12 June. Prime Minister's Office. <https://www.pmo.gov.sg/Newsroom/PM-Lawrence-Wong-at-the-Joint-Press-Conference-with-Malaysia-PM-Anwar-Ibrahim-June-2024> (검색일: 2024/01/01)

_____. 2024e. "Toast speech b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Finance Lawrence Wong at the official lunch in honour of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2 September. Prime Minister's Office. <https://www.pmo.gov.sg/Newsroom/Toast-speech-by-PM-at-the-Official-Lunch-in-Honour-of-UN-Secretary-General-Antonio-Guterres> (검색

일: 2024/12/22)

_____. 2024f. “Remarks b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Finance Lawrence Wong at the Joint Press Conference wi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Yoon Suk Yeol” Prime Minister’s Office. <https://www.pmo.gov.sg/Newsroom/PM-Lawrence-Wong-at-the-Joint-Press-Conference-with-President-of-the-Republic-of-Korea-Yoon-Suk-Yeol> (검색일: 2024/12/22)

(2025.01.15. 투고, 2025.01.20. 심사, 2025.02.20. 게재확정)

<Abstract>

Singapore 2024: The Fourth Generation Prime Minister and the Future of Singapore's Meritocratic Elite System

Jeehun KIM
(Inha University)

The year 2024 was an important year, as the new generation Prime Minister Laurence Wong swung in and he provided his new visions for Singapore at the National Day speech. Like Korea and other advanced economies, Singapore also has the trend of low fertility rate and marriage rate. On the other hand, Singapore has a concrete socio-political system of elitist meritocracy-based one party dominance in the political arena. Mr. Wong addressed four key areas of 'economy', 'families', 'housing' and 'education' to accommodate the younger generation Singaporean residents. Whether the policies of the new PM works or not remains to see, and the generational election in 2025 will be a upcoming litmus test of the change of the new system.

Key Words: Singapore, Laurence Wong, Prime Minister, Meritocracy, Elitist Political System.